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9 권 49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329)	봉헌 (216)	성체 (160)	파견 (399)
---------	----------	----------	----------	----------

제1독서 | 지혜 11,22-12,2

화답송 | 시편 145(144),1-2,8-9,10-11,13ㄷㄹ-14(㉠ 1 참조)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 나이다.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영영 세 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 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 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 들 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 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주님은 말씀마다 참되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넘어지는 누구라도 주님은 붙드시고, 꺾인 이는 누구라도 일으켜 세우시네. ◎

제2독서 | 2테살 1,11-2,2

복음환호송 | 요한 3,16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 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

복 음 | 루카 19,1-10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0/20	이 그레이스	김 헬레나	박 다니엘
10/27	이 그레이스	고 안나	박 다니엘
11/3	유 요한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11/10	이 그레이스	김 헬레나	박 다니엘

영어독서: 손 데레사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185	\$	\$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김 마론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1/2	유 요한/유 마리아	12/7	김 마론/ 김 헬레나
11/9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12/14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11/16	홍 마르코/ 홍 아네스	12/21	손 아놀드/ 손 쟈마
11/23	김 요아킴/ 고 안나	12/28	이 글라라/ 장 글라라
11/30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1/4	박 벨라델타/ 정 루시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 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성체조배는 11 월 7 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첫번째 일요일 오후 7시 00분
이번 임원회의는 하마이카 행사로 인하여 다음 주일(11/10)로 변경 되었습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8:00

기도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6351 Aker Rd. #7, Bakersfield. CA 93313

성경공부: 매주 주일미사 후 (둘째 주 제외)

매주 미사후 친교실에서 성경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소 공동체 모임: 주일 미사 후 친교실

매달 둘째 주일 미사 후 친교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다음 소 공동체 모임은 11 월 10 일 입니다.

가을 축제 Nov 3rd 2019

오늘 미사 후 행사가 진행 됩니다.

많은 형제 자매님의 참여와 도움을 바랍니다.

11 월은 위령성월 입니다

비치된 위령성월 봉투에 돌아가신 분의 본명을 적어 봉헌 하시기 바랍니다.

11월 한달동안 이 분들을 위한 합동 연미사가 봉헌 됩니다.

또한 미사시작 5분전에 위령성월기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말씀의 이삭

삶과 죽음

-아혜선 요셉피나 | 성가 가수, 금속 공예가-

지난해 여름, CPDC 창작생활성가제를 통해 연을 맺어 20년 동안 친교를 나누던 친구를 잃었습니다. 미루고 미루다 6월엔 꼭 보자던 약속을 지키기라도 하듯 영정 사진 속의 친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보고도 믿기지 않아 세상이 멈춰버린 듯했습니다. 나눠야 할 이야기, 계획했던 일도, 위로해주고 싶던 친구의 상처 난 마음도 그 사진 안에 가둔 채, 하루하루 친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1주기를 맞아 생활성가를 함께하는 동료 선배들과 추모음악회를 준비하면서, 비로소 우리 곁을 떠난 친구가 주님 품에 들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추모음악회를 통해서 그녀가 살아있던 삶의 값진 유산들을 살피며 그녀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자신에게 부여하신 성령의 은사를 정확히 발견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삶을 살았고, 유작 음반을 통해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세상에 두고 떠났습니다. 그녀가 썼던 가사를 통해서 그녀의 생각이, 그녀의 노래 틈 속에 그녀의 숨결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있었지만 오늘은 없는 친구를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체험했습니다. 덧없음과 두려움, 연민과 아픔, 돌아봄과 깨달음이 내가 되고 친구가 됐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 또한 부여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지곤 합니다. ‘요셉피나, 너는 지금 살아가고 있

니, 아니면 죽어가고 있지?’ 친구의 죽음을 통해 나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죽어가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어릴 땐 40대가 되면 완벽한 어른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모든 일에 정답을 알고 옳은 결정을 하는 어른. 그런데 마흔다섯이 된 지금도 온전한 인간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행했던 옳은 결정이 모두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며,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주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내 마음과 행동은 이미 나를 앞질러 가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내가 주는 선물이 되기도, 아픔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옳은 방향을 선택해서 살고 있다 자부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또는 세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짚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과 행동이 죽어가는 선택이 아니라 살아가는 선택이길 간절히 바라고 청하면서, 무엇이 사람의 욕심인지 무엇이 사람의 희망인지 그 차이를 분별하길 청하면서요. 죽은 친구가 내 안에 살고 있고, 돌아가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듯 그 죽지 않는 생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싶습니다.

훗날 우리 곁을 떠나 먼저 주님 품에 있을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면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가다, 나 잘 살다가 온 거 맞지?” 하얀 이가 모두 드러나도록 빛나게 웃으며 맞장구쳐줄 그 친구 얼굴이 오늘 참 많이 그립습니다.